



# 벤처, 그 꿈과 현실

(주)윈스테크넷  
대표이사

김대연

가능한 호흡을 길게 가질 것, 서두르지않고 먼 날을 내다보고 준비할 것  
- 성장벤처를 위한 준비 사항

99년 여름 경이었나 보다. 대기업에서 사업팀장을 하다 어떤 계기가 되어 벤처기업 사장이 되었다. 말이 사장 이지 직원도 몇 명 되지 않고 팔 물건도 없었다. 내가 합류할 당시는 이미 이전 사업을 접고 앞으로 시작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

그 동안은 대기업에서 제품 사이클이 최소한 수십년은 되는 소위 '굴뚝사업' 을 해왔는데, 그 당시 한참 벤처붐이 불어 희망을 갖고 내딛은 벤처업계는 정말 활기찬 곳이었다. 몇 안 되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면서도 벤처붐과 함께 대박을 꿈꾸며 떼돈을 벌어 돈방석에 앉을 희망으로 열심히 제품 개발에 전념했다. 초기 한두 해 동안은 나 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모르핀을 맞은 것처럼 수면시간이 부족해도 졸지 않고, 회사에 돈이 없어도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다들 머지않아 대박이 터질 거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다행히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직원들이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든 게 가장 큰 행운이었고, 제품을 선보일 좋은 기회가 비교적 쉽게 찾아온 것도 행운이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회사는 매년 꾸준히 성장했고, 2003년에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며 코스닥시장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아찔하다.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달콤한 유혹이었던 벤처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았다. 코스닥붐 시기에 너도나도 시작했던 벤처는 십중팔구 망했다.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해도 많은 벤처기업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시장은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나도 벤처사업가로서 기반을 다졌을 때의 일이다. 지금은 충격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내 친구가 모든 걸 '올인(All-In)' 하던 벤처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조언도 해주었지만 정작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전혀 내색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벤처는 꿈을 먹고 크긴 하겠지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문제는 모순적이게도 '올인' 해도 될까말까 하는 벤처사업에 스스로 퇴로를 열어두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얻은 교훈은 가능한 호흡을 길게 갖고 가라는 것이다. 주위에서 많은 유혹과 질책이 있겠지만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벤처사업도 굴뚝사업처럼 길게 보고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은 성장보다 존재가 우선이다.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좌우명으로 삼던 말을 벤처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되새기고 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